

Session 02 :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I. 요엘서의 주제인 여호와의 날

15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욘 1:15)

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욘 2:1)

11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욘 2:11)

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욘 2:31)

14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욘 3:14)

A. 요엘서의 주요 주제는 4번이나 언급된(욘 1:15; 2:1, 11, 31, 3:14) “여호와의 날”이다.

B. 여호와의 날은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며, 마지막 때의 시간 순서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이다.

II. 여호와의 날의 정의

A.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의 두드러진 주제 중의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것은 “그 날” 또는 “큰 날”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날”, “그 날” 이나 “큰 날”의 구절은 성경에서 100번 가까이 발견된다. 구약에서는 약 80번이 있다.

B. 이 날은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권적인 리더십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도 불린다. 주께서 주의 힘과 지혜를 현저하게 보이는 그 날은 주의 날이 되며, 종국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된다.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경영하심은,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벧 후 3:9, 전 8:11). 하나님께서는 드물게 그분의 일반적인 일하심을 벗어나서 거대한 일하심을 배역함에 대해 대적하여 일어나신다. 이렇게 주의 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과 심판 양 쪽으로 다 나타난다.

C.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이례적이며 공개적으로 명백해지는 역사의 특별한 시간대이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심판이 더 강화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부여되는 특별한 시간이다. 주께서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권능을 나타시며, 주를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나라들을 국문(심문)하심으로 온 땅을 향한 그의 열심을 명백히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놀라운 권능과 축복으로 방문하실 것이다.

D.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 보통 때와 다르게 현저하게 드러내시

Session 02 여호와의 날

며 행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시간대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에 대해 단호하게 개입하시며, 그 자신을 죄를 향해 싸우러 나가시는 전사이자 왕으로서 드러내시는 시간이다. 이 전사이자 왕이신 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공개적으로 맞서 싸우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옹호하시며 구원하신다.

- E. 이에 대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 : 사 2:10-22; 4:1-6; 11:1-15; 13:6-9; 겔 13:5; 30:3; 욥 1:15; 2:1,11,31; 3:14; 암 5:18-20; 욕 15; 습 1:7,12,14-18,20; 슝 14:1-4; 말 4:5; 살전 5:2-3; 살후 2:2-3; 벤허 3:10; 계 6:17

III. “여호와의 날”의 두 가지 속성 - 크고 두려운 (GREAT AND TERRIBLE)

11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욥 2:11)

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5)

- A. 여호와의 날의 두 가지 속성은, 그날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큰 축복의 권능의 날인 동시에 지속적인 주의 대적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다. 이사야는 이 날을 은혜의 해와 신원의(보복의) 날이라 지칭했다(사 61:2). 이는 은혜에 있어서는 긴 시간을 말하는 “해(year)”를 말하고 있으며, 보복에 있어서는 아주 짧은 시간인 “날(day)”을 말하고 있다.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 B. 큰 날 (Great Day) :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날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로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된다. 이 날은 초자연적인 공급과 인도하심(시 91편; 렘 31:9), 그리고 보호하심(출 8:22-23; 9:4,6,26, 고센 원리)이 있는 날이며,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기적이 전 지구적으로 결합되며 배가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 날의 “크며 위대한(great)” 부분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부여짐으로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동반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욥 2:28-32).
- C. 매우 두려운 날 (Very Terrible Day) : 이 날은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상 가장 가혹하게 부여지는 날이 될 것이다(계 6-20장). 여호와의 날의 “두려운” 측면은 일곱 인봉 심판,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한 적그리스도 제국을 향한 심판을 말한다(계 6장; 8-9장; 16-19장).
- D. 하나님께서는 두 부분의 구약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종종 말씀하셨다. 출애굽의 모세의 스토리는 주를 부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적인 “큰” 일에 대한 그림이 되며, BC 586의 바벨론 군대의 침입은 지속적인 배역에 대한 심판의 “두려운” 부분을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예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심판과 축복에 관련된 주요 원칙들을 배울 수 있다.
1. 긍정적인 면 -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나올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기적들이 풀리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다.

Session 02 여호와의 날

2. 부정적인 면 -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마지막 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해할 수 있다.
3. 반복적으로 성경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여하신 구원을 통해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알며, 바벨론 침략을 통해 지속적인 배역함을 대적하시는 그분의 열정을 알지어다.” 이 두 가지 일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IV. 역사 속에서 묘사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들 - 지구적 & 지역적 스케일

- A. 지구적이고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단 한 번 일어난다(골 2:18-3:21).
- B. 지역적이고 비교적 작은 날 : 이는 역사를 통해 여러 번 일어난다(골 1:1-2:11).
- C. 어떤 구약의 심판의 때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날들은, 그와 유사하지만 더 큰 강도로 심판이 풀어지게 될 미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 가리키고 있다.
- D.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의 긍정적인 면들은 마지막 때의 위대한 부흥과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 E.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들은 마지막 때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의 전 지구적인 부흥과 심판이 있는 날이 될 것이다. 메뚜기 재앙 후에 바벨론 침략이 있었던 “작은 날”(골 1-2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미래의 여호와의 날(골 2:31)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 된다.
- F.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한 이스라엘의 위기는 역사 속의 모든 군사적 충돌을 능가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군사적 충돌은 요엘서 2:1-9에서 나타나는 바벨론 군대에 의한 침략을 훨씬 능가하는 일이 될 것이다.

1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표준 새번역 :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 (슌 14:1-2)

- G. 하나님의 주권적 전략으로, 전 지구적 충돌의 증가는 성령님의 가공할만한 부으심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향한 최악의 날과 최고의 날이 우리의 앞에 다가오고 있다.

V.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세 번의 “여호와의 날”

- A. 우리는 요엘서에서 세 번의 “여호와의 날”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농경적인 환란을 볼 수 있고(골 1:15), 두 번째는 요엘서 2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 군대의 군사적 침략을 볼 수 있다(골 2:1,11). 마지막 세 번째로 요엘서 3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Session 02 여호와의 날

심판을 볼 수 있다(을 2:31; 3:14).

- B. 요엘서의 심판은 세 번의 서로 다른 시간대와 연관되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세 개의 “날(day)”들 각각은 재난과 연관되어 있었다.
1.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가뭄(을 1:16-20)과 맹렬한 불(을 1:19-20)이 동반된 메뚜기 재앙(을 1:4-12)에 의한 **농경 재난**의 부분이었다.
 2.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을 1:1-2:9) **군사적 재난**이었다.
 3.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가리키고 있다(을 2:18-3:21), 이 여호와의 날의 재난은 요한계시록(계 6:17)에서 볼 수 있다.
 4. 세 번의 여호와의 날은 온전한 하나의 그림을 얻기 위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 C. 요엘 시대의 위기는 점진적으로 가중되었는데, 농경적인 위기(을 1:1-19) 뒤로 군사적 위기가 뒤따랐다(을 2:1-9). 4번이나 연달아 닥친 메뚜기 떼들의 공격에 의해 이스라엘은 거의 기아의 상태에까지 몰렸다. 사람과 동물들이 죽어감에 따라, 질병이 창궐하기 시작해서 모든 거주민들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메뚜기 재앙은 아마도 3~5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을 1:15; 2:25a).
1. 이러한 농경에 닥친 메뚜기 재앙의 비극적인 충격이 거의 지나갈 무렵, 다시 한 번 주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바벨론 군대의 침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농경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다. 이때는 아직 메뚜기 떼에 의한 처참한 결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재앙이 생생히 남아 있던 때였다.
 2. 이때가 바로 요엘이 사람들을 성회로 기도와 금식으로 나올 것을 부르짖던 때이다(을 1:14). 이런 위기가 세 번으로 나뉘어져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다음의 침략이 오기 전까지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회개는 바로 다음에 임할 군대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의 위기로 인해 일어난 많은 결과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 요엘은 아마도 군대의 침략이 있기 10~20년 전에 예언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때로 점차적으로 증가된다. 이를 통해 다음 심판이 임하기 전에, 계속해서 배역 하던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 D. 요엘서 1장에서, 요엘은 이스라엘에 임했던 자연 재해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 설명한다. 메뚜기 떼의 침략이 있었고(을 1:4), 가뭄(을 1:17-20) 그리고 가뭄 뒤로 이어진 맹렬한 불들(을 1:19-20)이 지나갔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터전은 위협받고 있었다.
1. 그들은 현재의 재앙이 곧 지나갈 것으로 믿고 있었다. 요엘은 사실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던 것이다, “아니다! 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Session 02 여호와의 날

2.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엘을 보내셔서, 왜 이러한 재난이 수그러들지는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만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 포도주와 감람유가 끊어지고 있었고, 토지가 황폐화 되어버리며, 백성들은 낙담하고 있었다. 요엘은 이 재난은 더 악화되어 갈 것인데(욘 2:1-9),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즉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욘 2:12)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 요엘이 예언한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었다(욘 2:1-9). 바벨론은 많은 수의 유대인들을 바벨론 노역장으로 강제로 이동시켰다.

1. 메뚜기 재앙은 겨우 몇 년간 계속되었지만, 바벨론에 의한 위기는 거의 70년간 계속되었다(렘 25:9-14; 29:10).

2. 바벨론 군대의 침략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밀려왔다(BC 606, 597, 586).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배역에 대해 심판하신 20년간의 군사적 재난이었다.

VI. 큰 날(The Great Day)을 이해하기 위한 작은 날들(Lesser Days)에 대한 연구

A. 위의 뚜렷이 구별되는 세 번의 여호와의 날들은 심판과 축복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보여준다. 온전한 하나의 그림을 얻기 위해 이 세 가지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B. 다양한 “지역적이고 작은 여호와의 날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적이고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해 배울 수 있다.

C. 작은 날들에 있는 심판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역사 속에 기록된 이러한 작은 날들로부터, 핍박과 배역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자비를 기꺼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회개하며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를 볼 수 있는 기록이다.

D. 역사 가운데 있었던 작은 여호와의 날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길에 대해 가르쳐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호의를 얻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도록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일은 다시 한 번 행하실 것을 알 수 있다.

E.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힌 채 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F.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으신다. 따라서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 원하시는 바는 말씀에 명확히

Session 02 여호와의 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이다.

VII. 세계 2차 대전은 역사 속에 있었던 중요한 작은 날이다.

- A.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 몇 번의 주권적인 징계를 받아왔으며, 이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들이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는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해버렸다.
- B.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충격은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의 끔찍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준다.
- C. 독일 나치의 유럽 침공은 적그리스도의 군사 침략에 대해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는 권력을 쥐게 되었다.
1.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히틀러가 히틀러의 어떤 악을 행할지 알지 못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지 6년 후, 폴란드에 대한 침공이 일어남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1939년 9월 1일). 그때, 아무도 그 이후 6년 동안 **5천만 명의 인류가 죽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2.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일들은, 그 일들이 일어나기 바로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의 군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에 없던 가장 끔찍한 죽음의 고통이 생겨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다.
- D.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을 통해, 그러한 거대한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940년대에 유럽과 아시아 일부를 강타한 이 공포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더 큰 스케일의 위기와 혼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준다.
- E. 홀로코스트(Holocaust) 사건은 반 유대정서가 급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으며, 모든 나라에 퍼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준다.
- F. 현재의 교회들이 다가오고 있는 큰 진동의 실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현실 감각은, 나치의 공포가 시작되기 직전의 유럽인들만큼이나 뒤떨어져 있다.

VIII. 여호와의 날의 2중적 의미 - 좁은 의미, 넓은 의미

- A. 마지막 때와 여호와의 날은 동일한 시간대를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좌정하시며, 대 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까지 펼쳐질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 B. **좁은 의미의 여호와의 날**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24시간의 하루를 말한다.
- C. **넓은 의미의 여호와의 날** -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전 지구 가운데 각별한 방법으로 풀어지는 시기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여호와의 날은 약 1,000년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 이는 대 환란으로부터 시작되어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한다.

Session 02 여호와의 날

1. 이는 다니엘의 70번째 주간의 한 가운데 시점인 첫째 인봉의 때에 시작하며, 대 환란 때의 축복과 심판이 풀어지게 된다. 이에 예수님의 재림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또한 포함되며(마 25:31-46), 예수님의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 통치기간까지 계속된다.
2. 이는 또한 천년왕국 마지막에 있는 열방의 마지막 반역에 대한 심판 또한 포함하며(계 20:7-9), 뜨거운 불로 현재의 하늘과 땅을 깨끗케 하는 일 또한 포함된다(사 65:17-19; 66:22; 벧후 3:13; 계 21:1).

D. 이 일을 자연적인 하루가 흘러가는 것과 비교해보면 도움이 된다. 하루는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의 몇 시간 동안의 어둠이 있게 되며, 결국은 새벽이 밝아온다. 여호와의 날은 3년 반의 어둠이 있는 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천년왕국의 빛”이 밝아오게 된다.

IX. 주님의 재림 :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기 전, 도중, 그리고 지나간 후에 불어오는 바람

A.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는데, 마치 바람이 바다를 격동시키는 것과 같이 열방의 일들을 변화시키시는 일이었다.

2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단 7:2-3)

B. 예수님 재림 사건의 전과 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을 일들은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일이다. 예로, 바다로부터 거대한 300km/h의 허리케인이 해변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태풍의 눈이 해변에 닿기도 전에, 강한 바람은 점점 증가하면서 해변에 타격을 준다. 태풍의 눈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자.

C. 심판과 축복의 바람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태풍으로부터 부는 바람이 태풍의 눈이 아직 육지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에도 불어치는 것과 같다.

D. 이때에는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 두 가지가 전부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양쪽에 다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바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전과 후에 이 바람들은 분별이 가능할 것이다.

E. 나는 우리가 시작 중의 시작의 시점(beginning of the beginning)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을 구하고, 계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내 의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대의 초기 시점에 있다고 믿는다.** 나는 믿기로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이 있다고 본다. 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아마 현재 20살 정도 혹은 2살 정도의 아이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이를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나가며, 성령님을 통해 그분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F. 주님의 재림에 앞서 부는 바람들은 모든 것들에 거대한 진동을 일으킬 것이다.

...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2:26)

- G.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과 후의 시간에, 모든 나라들에는 커다란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정리되어 없어지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전과 후에 많은 지리적 변화들이 있게 된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전과 중간의, 후의- 모든 사건들은 여호와의 날에 속한 일이다.

X. 여호와의 날 : 부분적, 실질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 A. **부분적인** : 요엘의 세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시간들
- B. **실질적인** :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시작되는 대 환란의 때
- C. **궁극적인** :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 끝나는 크고 흰 보좌가 서는 때

XI. 기본적인 원칙 : “형태는 비슷하지만 적은 강도로 다가오는“

- A. 요엘은 이스라엘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있을 축복과 심판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부르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적은 강도로 다가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1. 하나님께서 대 환란과 천년왕국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실 영광과 심판은 “그 형태는 비슷하지만 적은 강도로” 교회와 전 세계의 이방 나라들에게도 부어지게 될 것이다.
 2. 이스라엘은 그들의 배역으로 인해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회개로 인해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3.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에게 부여될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은 현재의 전 세계의 교회에도 부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은 강도로** 부어지게 될 것이다.
 4. 이 원칙은 이스라엘이 대 환란을 통해 견뎌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역하는 이방 나라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나, **적은 강도로** 부어지게 될 것이다.
- B.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들 위에 임하는 영광의 영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는 교회의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이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겪는 심판은 더 가혹할 것이나, 그들의 영광은 더 위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두시며 이스라엘에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사 2:2-4; 슥 6:12-13).
- C.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예언했을 때, 그들의 초점은 대부분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었다. 물론 가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날의 부분을 찾을 수 있기는 하다(사 13장; 24-27장).

- D. 우리는 여호와의 날의 축복과 심판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임하게 될지 알게 됨으로, 이방나라들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적은 강도가 될 것이다.
- E. 요엘서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의 재난은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이 어둠에 제국에 대해 동의하는 이방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군사적인 침략과 농경 위기(계 6장; 8-9장; 16장)로써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F. 많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부르는 “**선택적 신학교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만을 오늘날의 교회들에 대해 적용하며, 심판에 대한 예언은 오직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 G.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 가져야 할 태도는,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은 좋은 것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세계 모든 나라들에 부분적으로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